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모든 여수시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복지 향상·경제 활성화” vs “선별 지원이 효과적”

시의회 “시 재정 능력 충분” 조례안 발의... 시민 청원도 여수시 “시민적 합의 필요 ... 지방채 없이 불가능” 난색

정부-전남도와는 별개로 모든 여수시민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여수시의회와 시민들이 ‘재난기본소득’ 조례 발의와 청원에 대해 여수시는 재정난 등을 들며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다.

7일 여수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문갑태 의원 등 9명이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여수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 기본소득은 현금과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소요 예산은 담기지 않았다.

서완석 의원은 임시회 개회사에서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20만원 상당의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며 조례안에 힘을 실었다.

시 의장은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 예산은 564억원이며,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려면 280억원 정도로 빚이 없는 여수시의 재정 능력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취소되는 각종 축제 예산과 시급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수시는 “전 시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보였다. 여수시 관계자는 “현재 가용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잔액 24억원과 재난관리기금 잔액 77억원 등 233억원에 불과하다”며 “1인당 10만원을 주려면 300억원 가량 예산이 필요한데 사실상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은 일률적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개념으로 재난 지원금의 성격과 다르다”며 “정부가 전남도에서 재난 지원금이 모두 나가

는 만큼 소상공인 등 어려운 사각지대를 발굴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여수시의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재난 기본소득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시민 청원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27일 여수시가 운영하는 열린 시민청원에 ‘여수시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40만원 이상 지급해 달라’는 청원에 올라 지난 6일 현재 341명이 동의했다.

열린 청원은 20일간 3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청원으로 성립된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현실적으로 이루기 곤란하다”며 청원인에게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은 타 지자체와 선진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면서 “청원인의 주장대로 전 시민 1인당 40만원씩을 지원한다면 여수시민 28만2000명 기준으로 1128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는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에 시비 64억원을 투입해 늦어도 6월 중으로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여수시 제공>

고흥에 전국 최초 주민·지자체 참여형 수상태양광 건설

해장만 담수호에 95MW급 발전시설... 20년간 1100억 수입 기대

고흥 해장만 간척지에 대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선다.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직접 사업에 참여해 발전 이익을 공유하는 이른바 ‘주민·지자체 참여형’ 형태로, 전국에서 처음이다.

7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이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해장만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2년여만에 최종 허가돼 본궤도에 오른다. 특수목적법인 ‘고흥신에너지’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해장만 담수호 88ha에 95MW 규모의 태양광시설을 건설한다.

오는 8월께 착공해 내년 말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 2071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농어민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흥군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관심을 끌었다. 전체 발전수익금의 22%가 지역주민(포두면 2800여세대)에게 돌아가게 된다. 포두면민 95% 이상이 이 사업에 호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군은 발전수익금 말고도 담수호 임대료, 지역주민 발전기금, 귀향귀촌 생활안정자금 등 20년

간 모두 1100억원 이상의 재정 수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장만 간척지는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와 오도, 영남면 금사리를 잇는 길이 3462m의 방조제를 건설해 2724ha의 농경지를 조성한 것으로 담수호 면적만 500ha에 이른다. 1963년에 시작해 1993년 완공됐다.

고흥군 관계자는 “수상 태양광 발전은 물 위에 설치해 발전 효율이 높고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주민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말했다.

/고흥=주작중 기자 gjju@kwangju.co.kr



순천시 꾸미봉사단 회원들이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선풍기 보관 덮개를 만들고 있다. <순천시 제공>

폐현수막 선풍기 보관 덮개로 재탄생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제작 배부

순천시가 선거용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선풍기 보관 덮개를 만들어 배부한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업사이클센터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로 발생한 다량의 폐현수막을 수거해 선풍기 보관 덮개를 만들어 나눠준다.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같은 합성섬유로 제작되어 장바구니 또는 마대자투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장바구니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지만, 순천시 업사이클센터는 일상생활에서 유용하

게 사용할 수 있는 선풍기 보관 덮개를 제작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수거된 폐현수막은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생산동에서 각목과 끈을 분리하고 세척작업을 거쳐 ‘폐현수막 재활용 공예’를 수료한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순천시꾸미봉사단 10여명이 재능기부로 제작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선풍기 보관 덮개 200장을 우선 제작해 5월중 읍면동에 배부하고 제작과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온라인 교육용으로 활용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모던 스타일 Modern |

클래식 스타일 Classic |

지중해 스타일 Mediterranean Sea |